

“소통·참여 ‘시민의회’ 만들 것”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인터뷰

집행부 견제·감시 충실 ‘전문 시의원’ 활동 지원

“시민에게 듣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소통과 참여의 ‘시민의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조영표(52·남구1) 광주시의회 의장은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의회 존재의 이유는 시민이고, 모든 주권이 시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시민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의회’로 시민참여정치의 혁신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며, 소통과 화합의 ‘광장 의회’로 열린 의회의 참모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과 입법·예산 등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책을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선 6기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이뤄야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새로운 광주의 미래가 있다”면서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에는 협력하겠지만, 견제·감시를 위한 의회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강한 의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한 의회론’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운장현 광주시장과 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일색으로, ‘일당 독점 폐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를 복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의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의장은 민선 6기 들어 재검토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확실히 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검토와 공청회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지하철 1호선만으로



는 적자운영과 시민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교통 호환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도시철도 2호선은 반드시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민선 5기에서 구간 형평성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구별 분산배치 계획이 나왔고, 특히 도심 공동화가 심한 지역에서는 선수촌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좋은 정책은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집행부 견제해야 지역발전 가능”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보좌관계 도입 시급 연구·토론 문화 정착

명현관(52·해남1) 제10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정치과 신뢰,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전반기 전남도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바퀴에 비교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만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자신만의 ‘지방자치론’도 폈다.

명 의장은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의 눈치를 안 보고 의원을 지원하는데 특화돼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의원들이 사무처를 믿고 일할 수 있으며,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는 보좌관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른 광역시도의의회와 협조해 의회사무처 독립,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가장 우선되지만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반드시 뒤따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연구하고 토론하는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지방자치의 수준에 대해 그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명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을 대변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며 “권위주의나 경시 풍조를 버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그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도의원에 대한 철저한 지원 체계 구축, 소수세력에 대한 배려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의장에 당선된 뒤 현장을 돌아보고 도청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그는 제대 의회에서 경제관 광문회위원장을 지내면서 ‘성실한 의원’으로 유명했다.

명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대다수라는 이유로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것은 기우”라며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 7일 오전 제287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58명이 출석한 가운데 35표를 얻어 23표에 그친 임명규(새정치·보성) 의원을 제치고 의장에 당선된 바 있다. 명 의장은 선거 전 집행부에 대한 정확한 감시와 견제, 상생하고 소통하는 도의회 건설, 의회사무처 완전 독립, 의원들의 공약실천 지원, 의원 복지 증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주상고, 호남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주)동부전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4명 선출 의장 지지자들 ‘자리 나눠먹기’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이 일부 완료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제7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에 주경남, 환경복지위원장에 김용집, 산업건설위원장에 김민중, 교육위원장에 유정심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모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재직 의원 22명이 모두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주 의원과 김민중 의원, 유 의원은 각각 13표를, 김용집 의원은 12표를 얻었다.

이들은 지난 8일 의정단 선거 과정에서 신임 조영표 의장을 지지하고, 선거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실상 ‘낙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정단 선거에서도 조 의장을 지지한 김동찬·문태환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사실상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조 의장을 지지한 12명의 의원이 사실상 ‘자리 나눠먹기’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의원들의 ‘담합’으로 나머지 위원장 자리도 조 의장 측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정원 ‘호남 할당인사’ 씹쓸한 현실

출생지 영남→전남 변경 직원 대법 ‘상부 지시 따라 해임 부당’ 판결

승진자의 영호남 출신 비율을 맞추려는 상부 방침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의 출생지를 바꾼 국정원 직원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국정원 인사팀장 김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정원 인사팀장이었던 김씨는 2007년 12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은 영남과 호남 출신을 각각 40% 미만과 20%대 비율로 하라’는 인사 방침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 인사대상자를 취합한 결과 승진대상자 46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9%인 반면 호남 출신은 8.6%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직원 A씨가 인사자료에 호적상 출생지는 경북으로 돼 있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이라는 것을 발견한 김씨는 이를 김 전 원장에게 설명했고, 김 전 원장은 A씨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직전 인사에서 출생지가 경북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던 A씨는 그해 4급으로 승진했고, 김씨는 인사 이틀 뒤 김 전 원장의 승인을 받아 A씨의 서류상 출생지를 다시 경북으로 바꿨다. 김씨는 그러나 2009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런 행위가 공전자기록 조작과 국정원직위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인사권자인 국정원장이라고 인사기록을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출생지가 호적에는 경북으로 돼 있으나 실제 태어난 곳은 전남인 만큼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꾼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출생지를 변경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원심을 법리가 오택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출생지는 실제로 태어난 곳이나 호적상 출생지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국정원이 과거에도 본적지나 원적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김씨가 인사 후 A씨의 출생지를 다시 경북으로 바꾼 것도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연합뉴스

박대통령, 통일준비위 오늘 발족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관련, “15일 발표를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월 통일준비위 발족을 발표한 후 준비를 해왔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들로 많이 늦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대박’ 구상을 구체화 할 기구로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제반분야별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애초 4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 등으로 인해 출범시기가 늦어졌다.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 2명은 정부와 민간에서 한명씩 나눠 맡는다. 위원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해 70여명이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상황과 관련, “북한이 상호 비방 증지와 인전 아시안게임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해오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